

# 龍樹의 念佛思想에 대한 一考察

太元(李正模)

불교학과 교수

용수는 150~250년의 인물로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독파하여 대승사상을 정립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그를 여덟 종파의 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남긴 저서 17종류는 대부분이 쏘사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수행하는가를 밝힌 것이다. 이 논문은 17종류의 저서 중 《십주비바사론》과 《대지도론》에서 염불을 어떻게 논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용수는 불교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행을 어려운 수행문[難行門]과 쉬운 수행문[易行門]으로 교관하여 염불을 이행문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권하였는데 이는 그의 탁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상은 후대 중국의 담량·도작·선도가 이어받아 정토교를 대성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명의 행도와 득익에 대해서 논했다. 즉 부처님 명호를 누가 찬탄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듣고 어떻게 실천하며 얻어진 이익은 무엇인가를 논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정토경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다음 염불에서는 염불의 자세·방법·득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용수가 말한 색신염불·법신염불·실상염불·심호염불의 정의와 용수의 본의를 규명하였고 칭명염불의 칭과 염불의 염의 전후관계를 밝혔다. 그리고 이 논문은 칭명염불할 때 갖추어야 할 공경심과 執持在心の 의의와 정토경전과의 관계를 밝혀 용수 염불관의 특색을 규명한 것이다.

# 龍樹의 念佛思想에 대한 一考察

太元(李正模)

불교학과 교수

- |                |           |
|----------------|-----------|
| I. 龍樹의 生涯와 著書  | 2. 念佛方法   |
| II. 聞名과 行道와 得益 | 3. 十號念佛   |
| 1. 聞名과 行道와 得果  | 4. 稱名念佛   |
| 2. 聞名과 稱名      | 5. 念佛의 得益 |
| III. 念 佛       | IV. 結 論   |
| 1. 念의 자세       |           |

## I. 龍樹의 生涯와 著書

龍樹(Nāgārjuna)의 生涯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인도라는 나라가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龍樹의 生涯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중국 승려가 법을 구하기 위해 갔다 온 여행기에 의해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용수의 생존연대를 유럽의 학계에서는 기원후 1세기 또는 2세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기원후 150년~250년의 연대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사용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 생존연대는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용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기는 구마라집(350~409頃)의 번역이라고 전해지는 《용수보살전》,<sup>2)</sup> 길가야와 담요가 함께 번역한 《부법장인연전》<sup>3)</sup> 등의 한역 문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용수의 생애와 인간성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아니고 과장된 전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해 보면 용수를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대승보살도의 실천자로서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한

1) 다계우찌 쇼코, 〈용수-중관사상과 보살도-〉, 《경도불교의 사상》, p. 3.

후지하라 료세쯔, 《염불사상의 연구》, p. 70.

위의 두 사람은 우이하쿠쥬의 《인도철학사》를 인용하여 150~250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2) 大正藏 50, pp. 184上~186下.

3) 大正藏 50, pp. 317上~318下.

보살과 같이 下化衆生の 보살로 취급하였다.

용수는 남인도 출신으로 소년시절에는 바라문의 아들로써 네 가지 《베다》를 비롯하여 바라문교학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후 청년시절의 어느 날 친구 세 사람과 의논하기를 서로 학문적인 명예는 이미 얻었으므로 다음으로는 쾌락을 얻자고 하여 은신술을 이용해서 왕궁에 잠입하여 간통했다. 이렇게 하여 왕궁의 여성들이 잇달아 임신하여 왕궁은 대소동이 일어나 세 사람의 친구는 모두 왕궁의 신하에게 발각되어 사형당했다. 그러나 용수는 간신히 피해 숨어 지내면서 근심은 날로 더했다. 그때 용수는 이성애에 대한 욕정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달아 만약 목숨을 구하게 되면 출가하기로 결심했다. 그후 그는 목이 베어 죽을 것을 면했으므로 설산에 들어가 출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출가한 용수는 먼저 90일 만에 소승경론을 독파하여 체득했다. 그후 용수는 다른 경론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교도와 외교도를 상대하여 토론하면서 그들을 교화시켰다고 한다. 또 용수는 大龍(Mahā-nāga)보살의 인도를 받아 해저의 용궁에 들어가 대승경전인 《반야경》을 받아와 9일 만에 배워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용수는 남인도에서 많은 이교도와 소승불교도를 신통력으로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도 교화시켰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용수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탁월하여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인 4종류의 베다(Veda)를 배우고 난 후 불교의 소승과 대승을 논파한 천재로서 인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이교도와 불교도를 교화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용수가 남긴 저작 가운데 소승불교 교학을 자세히 소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에 대한 주석서를 남긴 것을 보면 석존 이후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수를 대승불교를 발흥시킨 여덟 가지 종파의 조사<sup>4)</sup>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용수의 저서를 한역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지도론》 100권, 구마라집 역(大正藏 25)
- 2) 《십주비바사론》 17권, 구마라집 역(大正藏 26)
- 3) 《중론》 4권, 구마라집 역(大正藏 30)
- 4) 《십이문론》 1권, 구마라집 역(大正藏 30)
- 5) 《壹輪盧迦論》 1권, 구담반야유지 역(大正藏 30)
- 6) 《대승과유론》 1권, 시호 역(大正藏 30)
- 7) 《六十頌如理論》 1권, 시호 역(大正藏 30)
- 8) 《십팔공론》 1권, 眞諦 역(大正藏 31)
- 9) 《廻諍論》 1권, 비목지산·구담반야유지 역(大正藏 32)
- 10) 《菩提資糧論》 6권, 달마금나 역(大正藏 32)

4) 모찌즈끼 신희, 《불교대사전》, p. 4996下.

- 11) 《보리심이상론》 1권, 시호 역(大正藏 32)
- 12) 《인연심론송 · 인연심론석》 1권, 역자불명(大正藏 32)
- 13) 《석마하연론》 10권, 별제마다 역(大正藏 32)
- 14) 《권발제왕요계》 1권, 승가발마 역(大正藏 32권)
- 15) 《용수보살계왕송》 1권, 의정 역(大正藏 32)
- 16) 《찬법계송》 1권, 시호 역(大正藏 32)
- 17) 《광대발원송》 1권, 시호 역(大正藏 32)

이 외 티베트(Tibet)본으로 《空七十論》, 《四讚歌》 등이 있다고 전해진다.<sup>5)</sup>

이와 같은 용수의 저서에 대해서는 眞撰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sup>6)</sup>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다음 기회로 머루고 본고에서는 용수의 진찬으로 보고 논하려 한다.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의 註解로서 불교 전반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십주비바사론》은 《십지경》을 주해한 것이라 보고, 《중론》·《십이문론》은 반야공의 근본사상을 논한 것이다. 이 밖에 《육십송여리론》·《십팔공론》·《회쟁론》은 여러 가지 사상을 비판하여 공사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고, 《보리자량론》·《보리심이상론》·《권발제왕요계》·《용수보살계왕송》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수행하는가를 밝힌 저술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 정토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염불을 논한 저술은 《십주비바사론》과 《대지도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논하려 한다.

## II. 聞名의 行道와 得益

### 1. 聞名의 行道와 得果

용수의 문명사상을 보면 무량수경류의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명에 의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行道가 적고 일반적인 대승불교사상에 입각한 得道·作佛·得不退의

5) 다께우치 쇼쵸, 앞의 책, pp. 10~11.

6) 히라가와 아끼라의 《십주비바사론의 저작에 대하여》(《인도학불교학연구》 5-2호, pp. 176~181)에서는 용수의 진찬으로는 의문이 있다고 논하고 있으며, 우류쵸 류신의 《나가루쵸나 연구》(pp. 33~44)에서는 시송 부분은 용수의 저작으로 간주하여도 큰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견도 있다. 또 《대지도론》에 관해서는 히가다 류쇼는 《대지도론 작자에 대하여》(《인도학불교학연구》 7-1호, pp. 1~12)에서 용수 자신의 딸과 구마라집의 加筆 부분이 있어 이 둘 중 어느 곳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논하여, 대체로 용수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학자도 있다.

설이 많다.

첫째, 용수는 부처님 명호를 누가 찬탄하는 소리를 듣느냐는 것에 대해서 보면 《대지도론》에서,

시방국토에서 모든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 명호를 찬탄하는 소리를 중생이 들으면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듣는다.<sup>7)</sup>

고 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는 소리를 중생이 듣는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대아미타경》의 제4원,<sup>8)</sup> 《평등각경》의 제17원,<sup>9)</sup> 《무량수경》의 제17원<sup>10)</sup>에서 시방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는 소리를 중생이나 보살이 듣는다고 설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수의 문명은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부처님의 명호다.

다음 문명에 의한 行道를 보면 《대지도론》에서,

須達장자는 처음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나서 마음 속이 환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며 법을 듣고 난 후 능히 도를 이룰 수가 있었다. 또 貫夷羅 바라문은 雞泥那結髮梵志로부터 처음 부처님 명호를 듣고 마음이 환희에 가득 차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법을 듣고 도를 이루었다.<sup>11)</sup>

고 하였다. 이것은 聞名→心驚喜→詣佛→聞法→得道の 행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聞名에 의해 즉시 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명호를 듣고 난 후 心驚喜·詣佛·聞法の 행도를 실천함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다. 용수의 이러한 聞名 행도는 경에서 말씀한 “시방 향하사와 같은 많은 세계 가운데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명호를 듣는 자는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sup>12)</sup>를 주석하여 해석한 것이다. 용수가 《대지도론》에서 이야기한 聞名에 의한 心驚喜는 초기무량수경전인 《대아미타경》 제4원의 聞名→歡喜踊躍, 《평등각경》 제10원의 聞名→踊躍, 범본무량수경 제18원의 聞名→澄心과 같은 것으로 聞名에 의한 淨信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는 무량수경전에 나타난 문명사상을

7) 大正藏 25, p. 710上.

8) 大正藏 12, p. 301上~中.

9) 大正藏 12, p. 281中~下.

10) 大正藏 12, p. 268上.

11) 大正藏 25, p. 313下.

12) 大正藏 25, p. 313上.

바탕으로 하여 詣佛·聞法을 부가시킨 聞名行道이다. 또 《대지도론》 권93에서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반드시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 말하기를, “다른 부처님께서는 수고스럽게 여러 가지 법을 설하여도 중생이 오히려 도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다만 부처님 명호만 듣고 도를 이룰 수 있는가” 하였다.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다른 곳에 계신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을 설하여도 중생이 혹은 도를 이루고 혹은 善根을 이루므로 결국 헛된 설법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 명호를 듣게 되면 반드시 阿鞞跋致에 이르게 된다...(중략)...혹은 명호를 듣거나 혹은 이와 같은 공덕에 대한 것을 들으면 深信이 견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은 선근이 어찌하여 필경 부처가 되지 못하리오.”<sup>13)</sup>

라고 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는 聞名→深信→種善根→作佛하는 행도다. 여기서는 모든 부처님이 한 부처님의 명호를 찬탄하는 소리를 중생이 들음에 의해 깊은 신심이 생겨 선근을 짓는다는 행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것은 《대아미타경》의 제5원에서,

나의 명호를 듣고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반성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도를 이루기 위하여 선근을 짓는다.<sup>14)</sup>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즉 용수는 《대아미타경》에서 말한 문명에 의한 悔過作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도론》을 저술할 때 《대아미타경》도 참고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48원경의 《무량수경》을 보면 제20원에서 “나의 명호를 들으면 나의 국토를 係念하여 모든 덕의 근본을 심는다”<sup>15)</sup>라 하여 ‘모든 德本을 심는다’의 植諸德本은 있으나 ‘선근을 짓는다’의 作善은 없다. 또 범본무량수경의 제42원과 제43원을 보면,

나의 명호를 들으면 그것을 들음과 동시에, (듣는 것에 의해 쌓여진) 선근에 의해서<sup>16)</sup>

라고 하여 聞名 그대로가 선근이 되기 때문에 ‘作善’의 행도는 아니다. 또 범본무량수경의 제23원에 ‘선근을 심으려고’<sup>17)</sup>라는 문장은 있지만 聞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수

13) 大正藏 25, p. 712中.

14) 大正藏 12, p. 301中.

15) 大正藏 12, p. 268中.

16) 나까무라 하지메, 《정토삼부경》 상권, p. 47의 제42원·43원.

17) 나까무라 하지메, 앞의 책, p. 40.

의 聞名에 의한 作善은 《대아미타경》을 근본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아미타경》의 ‘作善’은 왕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대지도론》에서의 ‘作善’은 作佛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용수가 참고한 무량수경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각기 다른 異說이 나올 수 있다.

모찌즈끼 신꼬 박사는 용수가 보았던 무량수경은 전혀 다른 異本이라고<sup>18)</sup> 주장하였고, 이계모도 주신은 모찌즈끼 신꼬의 설을 부정하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용수가 본 무량수경은 하나로 한정할 수 없고, 여러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존하는 무량수경본 이외 다른 것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특히 용수의 교학과 관계가 있는 것은 《평등각경》과 같은 초기 무량수경은 아니고, 제48원 계통의 후기 무량수경<sup>19)</sup>이라고 주장하였다. 후지하라 료세쯔는 용수는 당시 보급되고 있던 한 가지 책을 보고, 혹은 인용하거나 혹은 뜻만을 취했다<sup>20)</sup>고 막연히 논하고 있으며, 시끼이 슈조는 용수 시절에는 이미 제48원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논한 다음, 용수가 참고한 정토교 관계의 경전은 《반주삼매경》 賢護本보다 오래된 것으로 이것에 가까운 책이고, 무량수경은 魏譯本の 《무량수경》보다도 오래된 것에 가까운 하나의 책이며, 아미타경은 그때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논하고 있다.<sup>21)</sup>

이상의 여러 학자의 설은 모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실히 맞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추측하여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용수가 인용한 정토사상의 내용이 현존하는 정토경전과 딱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각기 다른 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용수의 저술내용을 보면 많은 대소승경전과 많은 논설을 인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피력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용수는 그 시대에 존재하는 제24원계, 제48원계의 정토경전과 자기의 생각을 삽입시켜 정토사상을 피력했다고 본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이야기한 聞名의 行道는 정토경전에서 이야기한 聞名→歡喜에서 왕생이 빠지고 반야경전에서 이야기한 ‘得道’, ‘作佛’을 삽입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용수는 《십주비바사론》에서,

부처님 명호를 듣고 반드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本願이 있기 때문이다. 혹 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이 곧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같다. 여자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난 후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가 일심으로 여자의 몸을 바꾸기를 위해 스스로 깊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信解力이 있어 남

18) 모찌즈끼 신꼬, 《정토교의 연구》, p. 301.

19) 이계모도 주신, 〈용수와 무량수경〉, 《인도학불교학연구》 8-1호, pp. 290~291.

20) 후지하라 료세쯔, 《염불사상의 연구》, p. 81.

21) 시끼이 슈조, 《정토염불원류고》, pp. 409~411.

자의 몸을 서원하면 이 여자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어 여자의 몸을 바꾸게 된다. 만약 여인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인연이 없고, 또 여자의 업이 다하지 못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처님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인연은 부처님을 친견할 때 얻는 이익을 설한 것과 같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왕생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信解力이 많고 모든 선근을 성취하여 업장의 장애가 이미 다했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다. 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의 인연으로 왕생할 수 있다.<sup>22)</sup>

고 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聞名과 見佛의 得益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한 문명에 의한 入必定은 초기 무량수경에서는 보이지 않고 후기 무량수경전인 《무량수경》의 제42원의 住定供佛願, 제45원의 住定見佛願, 범본 무량수경 제41원의 住定見佛願, 제44원의 入定恭敬佛願, 《여래회》 제42원의 住定공불원, 제45원의 定中供佛願, 《장엄경》 제32원의 住定恭敬佛願, 제34원의 住定敬佛願에 나타나 있다. 또 문명에 의한 女身轉男도 초기 무량수경에는 없고 후기 무량수경전인 《무량수경》의 제35원, 《장엄경》의 제27원의 내용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용수는 제48원계의 정토경전도 참고한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명왕생은 《대아미타경》의 제4·5원, 《평등각경》의 제17·19원, 《무량수경》, 범본 무량수경의 제19원, 《여래회》의 제20원, 《장엄경》의 제14원의 내용으로 초기·후기 무량수경전의 공통된 내용이다. 그래서 용수는 제24·48원계의 무량수경을 참고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는 마지막 부분에 ‘본원인연으로 왕생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는지도 모른다.

## 2. 문명과 稱名

《십주비바사론》 제5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부처님께서 명호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 곧 무량한 덕을 얻는다. 이것은 寶月을 위하여 설함과 같기에 나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한다. 현재 시방세계에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곧 不退轉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sup>23)</sup>

고 되어 있다. 이것은 부처님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大乘寶月童子問法經》의 설을 인용한 것이다. 이 개송 가운데 문제점은 첫째 명호를 듣는 자는 무량한 덕을 얻는 것이고, 둘째 명호를 부르는 자는 불퇴전의 지위를 얻는다는

22) 大正藏 26, pp. 32下~33上

23) 大正藏 26, p. 42上



것이다.

용수가 인용한 《대승보월동자문법경》을 보면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을 설하기 전에,

오직 원하옵건대 저 시방세계에 계신 여래의 명호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이 명호를 듣고 나면 오역죄 등의 죄와 일체업장이 소멸되어 無上正等正覺에서 속히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sup>24)</sup>

라고 하여 聞名에 의하여 불퇴전을 얻음을 설한 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 세계의 이름과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였다. 이후 경전 중간에,

만약 어떤 중생이 한 찰나에 나의 열 가지 부처의 명호를 듣고, 공경·受持·書寫·독송하면서 남을 위해 널리 설하면 지은바 오역죄 등 일체업장이 소멸되어 지옥·축생·염라대왕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정등정각에서 속히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sup>25)</sup>

고 하는 내용을 4회나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은 문명을 증시하는 경전임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聞名→作善→除業→不墮三道→得不退의 行道다. 다시 말하면 문명 그 자체가 선근이 되어 得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경·수지·서사·독송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명호의 공덕을 설한다’는 등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수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열거하면서 동방에 ‘만약 사람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곧 불퇴전을 얻는다’, 남방에 ‘명호를 들으면 불퇴전을 얻는다’, 서방에 ‘부처님 명호를 듣는 자가 있으면 즉시 불퇴전을 얻는다’라 하여 사방의 각 부처님에게 문명을 삽입했다. 이 항목을 《대승보월동자문법경》에서 보면 시방세계의 부처님 명호와 국토만을 설했고 ‘명호를 들으면 불퇴전을 얻는다’라는 문장은 없다. 이것을 보면 용수는 ‘명호를 들으면 불퇴전을 얻는다’는 것을 동남서북의 부처님에 삽입시켜 문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용수가 ‘명호를 들으면 불퇴전을 얻는다’고 강조한 내용 속에는 위 경에서 이야기한 공경·수지·서사·독송 등의 행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용수의 문명사상은 聞法과 같이 진리를 듣고 신심을 내어 수행하는 행도의 시초의 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만약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곧 불퇴전을 얻는다’이다. 이 稱名에 대해서 가가와 다카오 박사는 시호 역의 《대승보월동자소문경》과 藏本 《여래장경》 등을 자세히

24) 大正藏 14, p. 108F.

25) 大正藏 14, p. 109中.

대조하면서 원본에 ‘聞名’으로 되었던 것을 한역자가 제멋대로 ‘稱名’이라고 번역했다고 논하고 있다.<sup>26)</sup> 《대승보월동자소문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聞名 위주의 경전으로 稱名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稱名은 聞名の 誤譯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송 자체는 용수가 《대승보월동자소문경》을 근거로 하여 용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그래서 계송을 자세히 보면 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경에서는 남방寂靜世界·서방 환희세계를, 계송에서는 남방환희계·西方善世界로 되어 여러 곳이 경전과 맞지 않으며, 부처님 명호도 다른 부분이 많아 계송 전부가 한역자의 오역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의 문명에서도 본 것처럼 용수는 여러 경전을 참고로 하여 논했기 때문에 이 계송도 《대승보월동자소문경》의 문명사상, 시방 부처님과 또 다른 경전에서 실한 시방 부처님과 수행 행도를 참고하여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였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稱名하는 자가 불퇴전을 얻는 것은 용수의 본의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聞名은 명호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 속에 명호를 受持, 執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송과 연결된 뒷부분을 보면,

물어 말하기를, “다만 十佛 명호를 듣고 執持하여 마음에 두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데 다른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에 의해서도 阿惟越致의 지위에 이를 수 있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미타 등 다른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고 念하면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마땅히 아미타부처님 등 다른 부처님을 공경·예배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sup>27)</sup>

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즉 聞十佛名號→執持在心→得不退轉의 行道로 聞名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며 명호를 마음 속에 執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執持在心’하기 위한 방법은 계송에서 이야기한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호를 부르면서 일심으로 염하는 것에 의해 불퇴전을 얻는 것이 용수의 본의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의 창명은 ‘執持在心’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계송에서 용수의 본의의 행도는 聞名→稱名一心念→得不退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방 부처님을 열거하기 전에 계송에서 부처님 명호를 들음에 의해 무량한 덕을 얻고, 명호를 부름에 의해 불퇴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용수의 본의로 ‘稱名’이 誤譯이 아니라고 본다.<sup>28)</sup>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용수의 문명사상은 제24원계, 제48원계의 《무량수경》을 참고한

26) 가가와 다카오, 《경도교의 성립사적 연구》, pp. 249~250.

27) 大正藏 26, p. 42下.

28) 가가와 다카오 박사는 이 창명설을 羅什이 첨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창명사상의 형성〉, 《인도학불교학연구》 11-1호, p. 41).

뒤에 《반야경》의 作佛, 得不退轉을 삼입하여 본인의 사상을 피력한 것이다. 그리고 聞名에 의해서 作善을 하고 어떤 果를 얻는 行道다. 즉 聞名에 의해 稱名과 일심으로 얽하여 어떤 果를 증득하는 행도로 이 두 가지가 용수의 聞名行道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량수경》 등 다른 정토경전에서는 ‘聞名’과 ‘稱名’ ‘念佛’을 연관시키지 않은 부분을 용수가 연관시킨 것은 탁월한 견해라 할 수 있다.

### Ⅲ. 念 佛

#### 1. 念의 자세

용수는 불교의 실천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십주비바사론》을 보면,

부처님 법 가운데에 무량한 문이 있듯이 世間の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육지에서 발로 걸어가면 고통이 따르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움이 따르듯이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정진함이 있고, 혹은 信方便에 의해 쉽게 수행하여 속히 阿惟越致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sup>29)</sup>

고 되어, 難易教判을 했다. 이 易行門 가운데서 이야기한 信方便은 염불이다. 이 염불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른 염불을 할 때 阿惟越致의 지위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수는 염의 자세를 《십주비바사론》에서,

이와 같이 正心으로 모든 부처님을 憶念하되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탐·욕·瞋恚·수면·의심·희롱을 제거하고 일심으로 얽하여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고, 삼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모든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땅히 일으키고,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산란하면 마땅히 섭수해야 하며, 아울러 대중을 보되 항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아직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항상 마땅히 32상과 80종호 두 가지 일을 稱讚하며 계승으로 찬탄하여 마음을 調攝해야 한다.<sup>30)</sup>

고 논하고 있다. 즉 모든 부처님을 억념할 때는 正心으로 해야 한다. 이 正心을 갖기 위

29) 大正藏 26, p. 41中.

30) 大正藏 26, p. 70下.

해서는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탐욕·진에·수면·의심·회롱 등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수의 이러한 사상은 《반주삼매경》〈行品〉에 있는 “계를 완전히 지키며 홀로 한 곳에 머물러 마음으로 서방아미타불을 염하라”<sup>31)</sup>고 하는 영향을 받아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용수는 다시 《대지도론》에서 身心의 자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결가부좌하여 몸을 바르게 앉아라 하였는데 무엇 때문인가? 몸을 바르게 함은 마음이 바르게 되기 때문이요, 이 몸을 바르게 앉으면 마음이 나태하지 않고 단정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念이 現前하게 된다. 만약 마음이 산란하면 그것을 섭수하여 돌이켜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念이 산란하면 또한 그것을 섭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繫念하면 三昧王三昧에 들어간다.<sup>32)</sup>

라고 하여, 直身→端心→繫念→入三昧의 행도를 말했다. 즉 먼저 몸의 자세를 결가부좌하여 바르게 함에 의해서 마음이 단정하게 되고, 마음이 단정함에 의하여 염이 잘 되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용수가 염의 자세를 얼마나 중요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 2. 念佛方法

용수의 念은 부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십주비바사론》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큰법과 삼매와 希有한 행을 念하면 환희심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환희의 인연으로 보살은 初地 가운데 있게 되고 마음은 환희심으로 넘친다.<sup>33)</sup>

고 되어 있다. 여기서 念의 목적은 초지의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용수는 念의 종류를 ‘念諸佛’, ‘念諸佛大法’, ‘念必定菩薩’, ‘念希有行’ 등 네 종류를 열거한 후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염제불’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을 염한다고 함은 然燈佛 등 과거의 모든 부처님, 아미타불 등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륵불 등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항상 이와 같은 모든 세존을 염

31) 大正藏 13, p. 905上.

32) 大正藏 13, p. 111中.

33) 大正藏 26, p. 26中.

하는데 앞에 계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것은 三界에서 제일이고, 이보다 수승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환희심이 많아진다.<sup>34)</sup>

이 가운데 ‘念諸佛’이란 과거의 연등불, 현재의 아미타불, 미래의 미륵불이다. 또 마땅히 毘婆尸佛·尸棄佛·毘首婆伏佛·拘樓珊提佛·迦那迦牟尼佛·가섭불·석가모니불 및 미래 세 미륵불을 念해야 하며, 마땅히 憶념예배해야 한다.<sup>35)</sup>

하여 과거 칠불과 현재, 미래불을 念하는 것으로 아미타불 한 부처님에게 한정된 염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念諸佛大法’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의 큰 법을 念한다고 하는 것은 간략히 부처님의 四十不共法을 말한다. ① 자유자재로 뜻에 따라 비행하며, ② 신통자재한 변화가 한량없고, ③ 신통자재함으로 듣는데 장애가 없으며, ④ 신통자재의 무량한 문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은 뒤에 마땅히 널리 설하리라.<sup>36)</sup>

고 되어 있다.

셋째, ‘念必定諸菩薩’에 대해서는

삼매와 모든 보살 등을 念해야 한다는 것은 만약 보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法位에 들어가 無生法忍을 얻게 되면 천만억의 마군들도 능히 교란치 못한다. 대비심을 얻어 大人法을 이루어 신명을 아끼지 않고 보리심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sup>37)</sup>

넷째, ‘念希有行’에 대해서

희유한 행을 念한다고 하는 것은 念만이 반드시 삼매와 보살의 제일 희유한 수행으로서 마음을 환희케 하므로 일체 범부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또 일체 聲聞과 辟支佛은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법의 無礙解脫과 薩婆若智를 얻는다.<sup>38)</sup>

34) 大正藏 26, p. 26中~下.

35) 大正藏 26, p. 43下.

36) 大正藏 26, p. 26中~下.

37) 大正藏 26, p. 26中~下.

38) 大正藏 26, p. 26中~下.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두번째의 ‘念諸佛大法’에 관해서 보면 같은 《십주비바사론》의 〈讚偈品〉에서,

마땅히 이 四十不共法相을 취하여 부처님을 순해야 한다. 또 모든 계승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하되 현전에 계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sup>39)</sup>

고 논하고 있다. 이것은 四十不共法을 취해서 염불하는 것으로 念法→念佛의 행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용수는 念의 종류를 《대지도론》 권20에서는 十念 가운데 있는 염불·염법·念僧·念戒·念死<sup>40)</sup>의 八念을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래서 용수의 念은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염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염불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色身念佛, 둘째는 法身念佛, 셋째는 實相念佛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한다.

첫째, 色身念佛에 대해서는 《십주비바사론》 〈念佛品〉 제20에서 주로 논하고 있다.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32상을 갖추고 80종호로 몸을 장엄하시는 것을 염하라. 수행자는 이 삼매로써 모든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순하여 그 몸을 장엄한다.<sup>41)</sup>

라고 되어 있다. 부처님의 색신은 32상 80종호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취하여 염념’<sup>42)</sup>하는 것이 색신염불이다. 또 《대지도론》에서는,

다시 부처님 몸은 공덕의 몸이다. 이 공덕의 힘은 十萬白香象寶보다 수승하여 이것이 부모의 遺體力이 된다. 혹은 신통공덕의 힘이 무량·무한하고 부처님 몸은 32상 80종호로 장엄된 것은 안으로 무량한 불법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를 친견하면 싫어하지 않게 되고, 부처님 몸을 친견하는 사람은 세상의 五欲과 만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부처님 몸을 친견하면 싫어하지 않고 기쁨이 넘쳐 흐른다. 부처님의 몸의 공덕이 이와 같기 때문에 마땅히 순해야 한다.<sup>43)</sup>

39) 大正藏 26, p. 833下.

40) 大正藏 25, p. 218下.

41) 大正藏 26, p. 68下.

42) 大正藏 26, p. 68下.

43) 大正藏 25, p. 220上.

고 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佛色身은 그대로 功德身이다. 이것은 안으로 무량한 佛法功德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色身을 염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수는 이와 같은 功德力을 갖춘 부처님의 色身을 念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출가하여 일체 지혜를 얻고 성불한다고 하였다.<sup>44)</sup> 이 色身念佛은 《반주삼매경》 1권본에서,

항상 부처님 몸의 32상 80종호를 念해야 한다. 큰 광명이 뚜렷이 비추어 단정함이 비할 데 없고, 보살과 승려들 가운데 계시면서 법을 설하되 빛이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의 병·생사·영혼·四大와 세간·천상으로부터 梵摩天에 이르기까지 그 빛을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을 염함으로써 삼매를 얻는다.<sup>45)</sup>

고 되어 있다. 용수는 이 가운데 있는 부처님 몸의 32상 80종호를 염함에 의해 삼매를 얻는다는 것에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권본에서의 ‘得是三昧’가 3권본에서는 ‘得空三昧’<sup>46)</sup>로 되어 ‘空三昧’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용수의 實相念佛에 空三昧의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3권본을 참고했다고 본다.

둘째는 法身念佛로서 이것은 《십주비바사론》 〈사십불공법품〉 제22에 논해져 있다.

보살은 이와 같이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의 몸을 염하고 나서 이제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공덕의 법을 念해야 한다. 소위 또 마땅히 40불공법으로써 부처님을 念하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다만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에게 무량한 법이 있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은 40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이를 念하면 곧 환희를 얻는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色身이 아니고 法身이기 때문이다.<sup>47)</sup>

고 되어 있다. 먼저 色身을 念하고 난 후 부처님의 法身을 念하라고 했다. 이 法身에는 40불공법이 있기 때문이다. 법신염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의 몸은 色身이 아니고 法身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법신염불에 대해서는 《반주삼매경》의 1권본·3권본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용수의 독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實相念佛이다. 이 實相念佛에 대해서는 〈助念佛三昧品〉 제25에 논해져 있다. 여기서는 먼저 법신염불에 대해서 한 번 더 논한 후에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44) 《대지도론》(大正藏 25, pp. 219下~220上). 是人不久出家得一切智成佛 佛身功德如是應當念佛.

45) 大正藏 13, p. 899中.

46) 大正藏 13, p. 905中.

47) 大正藏 26, p. 71下.

이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먼저 色身佛을 염하고 이어서 法身佛을 염한다. 왜냐하면 新發意菩薩은 마땅히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을 염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 中勢力을 얻고 난 후 마땅히 法身念佛을 하라. 그리고 나면 마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 上勢力을 얻는다. 그리고 난 후 마땅히 實相念佛로서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sup>48)</sup>

여기서 보이는 용수의 염불은 색신염불(新發意菩薩)→법신염불(中勢力)→실상염불(上勢力)의 순서를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염불수행의 차례로서 처음 신발의보살은 念하기 쉬운 색신염불에서부터 시작하여야만 궁극의 목적인 실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용수의 실상염불은 어떤 것인가? 實相으로서 염불하는 것은 어느 곳에도 탐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용수는,

色身に 집착하지 않고, 法身에도 집착하지 않아 능히 일체법을 알아서 영원히 고요함을 허공과 같이 해야 한다. 이 보살은 上勢力을 얻어 색신불이나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空法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sup>49)</sup>

고 하여, 색신불·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아 허공과 같은 영원히 적멸한 것이 실상염불이다. 다시 말하면 실상염불은 空을 信樂하여 모든 법은 허공과 같은 줄 아는 것이 염불의 본의라고 볼 수 있다.<sup>50)</sup> 여기서 설한 허공과 같은 영원한 적멸을 알 수 있는 것은 ‘信樂 空法’이다. 이 ‘신요공법’은 《반주삼매경》 3권본의 〈행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공을 염하기 때문에 곧 생긴 바 없는 法樂을 얻고 아 유월처를 얻는다.”<sup>51)</sup>

라고 설하고 있는 가운데 용수는 ‘공을 염한다’고 한 것에 근본을 둔 것이며, 또 〈無着品〉에서 설한 반주삼매의 空觀的 기초에서 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상염불은 색신과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는 中道 실천으로서 般若空의 사상을 기초로 한 空觀念佛이다.<sup>52)</sup>

48) 大正藏 26, p. 86上.

49) 大正藏 26, p. 86上.

50) 하세오가 가르야의 《용수의 정토사상》(pp. 120-122) 가운데 ‘知諸法如虛空’이라는 것은 모든 법은 ‘緣起’하기 때문에 ‘無自性空’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1) 大正藏 13, p. 905中.

52) 시끼이 슈조, 《정도염불원류고》, p. 425.



용수는 이러한 실상염불을 眞念佛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십주비바사론》〈歸命相品〉 제14에,

眞佛을 염한다고 하는 것은 色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相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며, 生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고, 性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다…(중략)…持戒·禪定·지혜·해탈·解脫知見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고, 十力·四無所畏 등 모든 부처님의 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실히 염불하는 것이 무량하고 불가사의하다. 수행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我와 我所가 없으며…(중략)…생기는 모습도 없다. 法性을 섭수하여 眼色이 허공의 도를 초월한 이와 같은 相을 이룸하여 眞念佛이라 한다.<sup>53)</sup>

고 하였다. 즉 색상 등 모든 법을 사용하지 않고, 안색이 허공의 도를 초월한 것이 진염불이라고 술하고 있다. 이것은 보살의 수행도로써 空觀三昧이다. 여기서 용수의 염불은 왕생이 목적이 아니고 반주삼매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十號念佛 가운데 ‘반주삼매를 이룰 수 있음을 마땅히 알라’<sup>54)</sup>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十號念佛

그러면 十號念佛을 보면,

장애가 되는 인연이란 須彌山·由乾陀山 등 十寶山·鐵圍山·黑山·石山 등이다. 이와 같이 무량한 장애의 인연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 天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타방세계의 부처님을 念하는 것은 모든 산의 장애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新發意菩薩은 마땅히 十號의 妙相으로써 염불해야 한다는 것은 설과 같다.

新發意菩薩은 十號妙相으로써 염불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치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十號妙相이란 이른바 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다.<sup>55)</sup>

고 술하고 있다. 이 십호염불은 실상염불을 논하고 난 후 바로 이어서 나온 것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수가 색신염불·법신염불·실상염불(진염불)을 논하여 결론을 내

53) 大正藏 26, p. 55中~下.

54) 大正藏 26, p. 86中.

55) 大正藏 26, p. 86上.

린 후 무엇 때문에 다시 新發意菩薩이 十號念佛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직 천안을 얻지 못한 신발의보살이라도 수행하기 쉬운 十號妙相으로 염불하여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하면 반주삼매가 성취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상염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공에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라 하여 장애가 없는 경지의 염불은 상세력의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新發意菩薩은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十號念佛은 모든 수미산·유견다산·십보산·철위산·혹산·석산 등과 같이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十號念佛을 하면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의 이야기는 《반주삼매경》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하여 이 세간에 앉아서도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6)</sup> 용수는 이어서,

이 사람은 명호를 반연함으로써 禪法이 증장하여 能緣相이 된다. 이 사람이 이때에 禪法에서 상을 얻으면 이른바 몸에 특이한 쾌락을 얻는다. 마땅히 알라. 반주삼매를 이룰 수 있고, 이 삼매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것이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삼매를 이루고 나면 깨끗한 거울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며, 맑고 깨끗한 물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 먼저 염불한 바에 따라서 그 색상을 보고, 이 상을 보고 난 후 만약 타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염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는 데 장애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아직神通이 없지만 비행해서 저곳에 이르러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을 듣는 데 장애가 없다.<sup>57)</sup>

고 술하고 있다. 이것은 심호염불→선법증장→반주삼매→得見諸佛의 행도로서 《반주삼매경》에 근본을 두었고 현생에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시발점은 十號念佛이다.

둘째, 심호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표상으로서 이를 염하는 사람은 무량한 덕을 성취한다. 아미타불 명호에도 無量光·無量壽의 공덕이 있듯이 이 十號 자체에도 공덕이 있기 때문에 新發意菩薩이 염하면 반주삼매가 성취되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상염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易行門에 근거를 둔 용수의 본의다. 그래서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56) 時諸佛國境界中 諸大山須彌山 其有幽冥之處 悉爲開闢無所蔽礙 是菩薩不持天眼微視 不持天耳微聽 不持神足到其佛刹 不於此間終生彼間 便於此坐見之 一卷本行品(大正藏 13, p. 899上), 3권본(大正藏 13, p. 905上)에도 나와 있다.

57) 大正藏 26, p. 86中.

물어 말하기를, “어떤 것이 염불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수행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如實知慧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고 하였다.

고 한 후 多陀阿伽(Tathāgata, 여래)·阿羅呵(arhāt, 응공)·三藐三佛陀(Samyaksambuddha, 정변지)·鞞闍遮羅那三般那若(Vidyācarana-saṃpanna, 명행족)·修伽陀(sugata, 선서)·路迦應(Lokavid, 세간해)·阿耨多羅 富樓沙曇藐婆羅提(Anuttara-puruṣadāmyśārathi, 무상사, 조어장부)·舍多提婆摩耆舍(śāsta devamanuṣyaṇām, 천인사)·佛陀(Buddha) 등 9종 명호<sup>58)</sup>의 열거에 이어서,

이 아홉 가지 명호가 大名稱이 되어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婆伽婆라 한다. 경 가운데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명호로 마땅히 부처님을 염하여야 한다.<sup>59)</sup>

고 논하고 있다. 이 《대지도론》에서는 아홉 가지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한 후 명호염불을 하라고 한 것은 신발의보살의 염불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용수는 다시 《십주비바사론》에서 신발의보살에 대해서

이 신발의보살은 저 수미산 등 모든 산에 능하지 못해 장애가 된다. 또한 아직 신통인 天眼·天耳를 얻지 못하고 능히 비행하여 이 국토에서 저 국토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삼매력으로써 이 국토에 머무르면서 타방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으며 설하시는 법을 들을 수 있다. 항상 이 삼매를 닦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진실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sup>60)</sup>

고 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다. 용수는 색신염불, 범신염불, 실상염불이 漸次가 있지만 심호염불만 하면 삼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것이 용수가 《반주삼매경》에 근본을 둔 독창적인 심호염불이라 볼 수 있다.

다음 용수는 반주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십주비바사론》에서

만약 在家보살이 이 삼매를 修習코자 하면 ①마땅히 깊은 신심을 내야 하고 ②업의 과보를 구하지 말고 ③마땅히 일체 내외의 물건을 버리며 ④삼보에 귀의하고 ⑤ 깨끗하게

58) 용수는 무상사와 조어장부를 합해서 아홉 가지 명호로 숭하고 있다.

59) 大正藏 25, p. 219中~下.

60) 앞의 주 29)와 같음.

오계를 지켜 계를 파하지 말고 ⑥ 구족하게 十善道를 행하라...(중략)...⑤ 항상 悲心을 행하고 ⑥ 애착을 끊고 ⑦ 일체 세간을 이익케 하고 안락함을 구하게 하며 ⑧ 일체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⑨ 항상 수행하기를 좋아하며 ⑩ 睡眠을 제거하여야 한다. 출가보살은 이와 같은 법 가운데서 마땅히 이 삼매를 닦아야 한다.<sup>61)</sup>

고 하여 육십 종류 마음의 자세를 술하고 있다. 이것은 염불하는 사람 또는 심호염불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용수의 견해라고 생각된다.

#### 4. 稱名念佛

용수의 청명염불설은 앞의 문명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용수의 眞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용수의 진작으로 보고 논할까 한다. 《십주비바사론》의 이행도에서,

만약 사람이 속히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하면 마땅히 공경심으로써 執持하여 명호를 불러야 한다.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처 지위에 이르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코자 하면 마땅히十方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고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것은) 《보월동자소문경》 〈아유월처품〉 중에 설해져 있는 것과 같다.<sup>62)</sup>

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호를 부르는 목적은 앞 염불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생이 아니고 불퇴전지위다. 이것은 《무량수경》의 제48원에서 보면 제11원 住正定聚願, 또는 제47원 聞名得不退轉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원 가운데 있는 뜻을 취해서 논한 것으로 용수의 견해라 생각된다.<sup>63)</sup> 이 명호를 부르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불퇴전은 《십주비바사론》의 여러 곳에서 나온다.<sup>64)</sup> 그런데 《대지도론》에서는 ‘稱南無佛’<sup>65)</sup> ‘稱名號’<sup>66)</sup>는 있으나 ‘得不退轉’의 證果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이 명호를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심이고, 둘째는 執

61) 大正藏 26, p. 87上.

62) 大正藏 26, p. 41中.

63) 시끼이 슈조, 앞의 책, p. 433.

64) 大正藏 26, p. 42上~中, 43上, 45上 등.

65) 大正藏 25, p. 109上.

66) 大正藏 25, p. 344上, 615中.

持이다.

첫번째, 공경심은 부처님에 대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용수는 이 공경심을 모든 수행의 근본바탕으로 두고 있다. 왜냐하면 《십주비바사론》〈분별공덕품〉 제11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어깨를 내놓고 공경심으로 합장하기를 주야 각각 三時를 하라. 공경하는 자세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가사를 내려 합장하는 이 일을 마땅히 초야일시에 일체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勸請·隨喜·회향해야 하며, 中夜·後夜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또 日初分·日中分·日後分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一日一夜를 합해 六時에 하며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현재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라.<sup>67)</sup>

고 논하였다. 여기서는 예배·참회·권청·회향·염불 등 모든 수행을 하는 데는 공경심이 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아미타부처님 등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도 또한 마땅히 공경 예배하고 그 명호를 부른다’<sup>68)</sup>고 되어 공경심이 근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경심은 곧 부처님에 대한 淨信이다. 용수가 말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이 선근을 심어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아니하며, 신심이 청정한 사람은 꽃이 피어 부처님을 친견한다. 시방에 계신 현재 여러 부처님들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써 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니 나는 이제 歸命禮하옵니다.<sup>69)</sup>

라 하였고, 또 《십주비바사론》〈四法品〉 제19에서는,

만약 보살이 믿음으로써 시작하면 뒤에 부처님의 지위에 머무른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초지를 깨끗이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十法 가운데 신에서 시작된다. 신이란 모든 불법인연 가운데 마음이 결정된 것이며, 또한 신은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의 心性이 청정하기 때문에 深根信力を 얻고 信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 가운데서 悲心を 일으킬 마음을 낸다. 일체 모든 부처님법은 大慈로써 근본을 삼는다.<sup>70)</sup>

67) 大正藏 26, p. 47中.

68) 大正藏 26, p. 42下.

69) 大正藏 26, p. 43中.

70) 大正藏 26, p. 68中.

고 술하고 있으며, 또 용수는

청정이란 모든 번뇌와 더러움을 여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信解를 이룸하여 청정이라 하고, 堅固信을 이룸하여 청정이라 한다. 이 청정심은 불법승 삼보에서나 고집멸도 四聖諦에서나 六波羅蜜에서나...(중략)...모두 다 心信이 청정해야 한다.71)

고 하고 있다. 이것은 信이 始原이 되어 모든 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공경심이 모든 행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데는 공경심을 가지고 하여야 하는 것이 용수의 본의다.

둘째, 執持는 부처님의 공덕과 명호를 억념하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아미타경》의 염불에 대하여 논했던 것처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호를 執持하는 것’72)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執持하는 것이다. 《아미타경》에서의 執持는 心意作用으로서 명호를 마음 속에 受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용수가 이야기한 執持는 《아미타경》의 執持보다 폭넓게 부처님의 모든 것을 억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 단원에서 용수의 염불 종류 가운데 색신염불의 32상 80종호와 법신염불의 사십불공법 등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용수의 執持는 명호의 공덕뿐만 아니라 법 등 모든 것을 把持憶念하는 것이다. 그래서 執持稱名號 뒤에 나오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고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 가운데 ‘念’은 執持와 같은 것으로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염하는 것이다.

다음 용수는 ‘念’과 ‘稱’의 순서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알아보자. 다시 말하면 念하고 난 후 稱하는지, 稱하고 난 후 念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앞의 이행도에서 ‘執持하여 명호를 부른다’·‘마땅히 시방 모든 부처님을 念하며 그 명호를 부른다’·‘만약 사람이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아녹다라삼담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73)·‘다만 억념·칭명·禮敬할 뿐 아니라’74)는 念이 앞이고 稱이 뒤이므로 念→稱의 행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十佛名號를 듣고 執持在心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미타불 및 모든 대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염하여 불퇴전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百七佛의 명호를 설하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稱→念의 행도로 앞과 반대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백칠불의 명호를 설하고 난 후에,

71) 大正藏 26, p. 26上~中.

72) 大正藏 12, p. 347中.

73) 大正藏 26, p. 42上.

74) 大正藏 26, p. 45上.

香頂佛·普賢佛·寶華佛·寶相佛 등 모든 부처님이 현재 시방세계에 계시므로 모두 명호를 부르고 억념해야 한다.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 만약 사람이 나를 念하고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귀의하면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며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억념해야 한다.<sup>75)</sup>

고 논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는 ‘명호를 부르며 억념한다’·‘나를 염하며 명호를 부른다’와 같이 정반대의 문장이 한 문구 속에 보인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용수의 본의는 ‘念’과 ‘稱’을 전후의 순서에 두지 않고 동시의 행도로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念과 稱은 동시의 작용으로서 稱 속에 念이, 念 속에 稱이 포함된 행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염불삼매의 득익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백 명의 상인이 연못에 들어가 보물을 캐내오는 도중에 재난을 만났을 때<sup>76)</sup> 부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보면,

오계를 받은 청신사가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땅히 나무불을 부릅시다. 부처님은 無上이시기에 능히 고통과 액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같이하여 나무불이라고 불렀다. 이때 물고기는 전생에 부처님의 과계 제자로서 宿命智를 얻어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 곧 입을 다물었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염불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중죄를 제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물며 염불삼매야…….<sup>77)</sup>

라 하여 같은 내용 가운데 ‘稱佛’과 ‘念佛’을 동시에 표현하여 구별하지 않고 술하고 있다. 이것은 용수가 稱과 念을 동시의 병렬적 행위로 보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 5. 念佛의 得益

다음은 용수가 이러한 염불을 하였을 때 어떠한 得益을 말했나 살펴보자. 먼저 《대지도론》에서,

75) 大正藏 26, p. 43上

76) 大正藏 25, p. 109上 昔有五百估客入海採寶 值摩伽羅魚王開口 海水入中般去駛疾 船師問樓上人 汝見何等 答言 見三日出白山羅列 水流奔趣如入大坑 船師言 是摩伽羅魚王開口 一是實日兩日是魚眼 白山是魚齒 水流奔趣 是入其口 我曹了矣 各各求諸天神以自求濟 是時諸人各各求其所事都無所益

77) 大正藏 25, p. 109上

보살도란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 가운데서 十方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을 숭하는 삼매가 항상 현전한다고 말한다. 물어 말하길, “보살의 삼매와 같이 여러 가지이며 한량이 없다. 무엇 때문에 다만 보살의 염불삼매가 항상 현전한다고 말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보살은 염불하기 때문에 佛道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염불삼매가 항상 현전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염불삼매가 능히 번뇌와 전생의 죄업을 제거하는데 다른 삼매는 능히 婬行을 제거할 수 있으나 瞋心을 제거할 수 없고, 능히 진심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어리석음을 제거하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三毒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업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염불삼매는 능히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다.”<sup>78)</sup>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念佛→入佛道→念佛三昧 현전이라는 行道를 숭하면서 염불삼매의 得益은 다른 삼매보다 수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전에서 성취된 염불삼매에 의해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죄가 소멸된다고 하는 현생의 得益을 논하였다. 또 같은 《대지도론》에서는,

또한 항상 염불삼매를 닦고 모든 부처님 광명의 신령스런 덕을 숭하기 때문에 몸의 광명을 얻는다.<sup>79)</sup>

고 하여 염불삼매를 닦는 것에 의해서 몸의 광명을 얻는다고 하고, 또

大月氏西佛六髻住處國의 한 佛圖 앞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 어떤 나병환자가 遍吉菩薩像 앞에 와서 일심으로 귀의하여 변길보살의 공덕을 숭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였다. 이 때 변길보살상의 오른손에서 보배스런 광명이 나와 그 몸을 만지니 병이 나왔다.<sup>80)</sup>

고 하여 보살을 염함에 의해 병을 제거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또

비구가 듣고 나서 스스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은혜가 무량하고 신통력이 한량없다. 손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면 곧 제거되어 몸과 마음이 쾌락을 얻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병자를 쾌유시키고 불구자는 구족하게 한다.<sup>81)</sup>

78) 大正藏 25, p. 109上.

79) 大正藏 25, p. 309上.

80) 大正藏 25, p. 126下.

81) 大正藏 25, p. 120上.



고 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여 고통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쾌락을 얻는 것 등 염불의 得益을 용수는 논하고 있다. 그러나 용수의 염불 得益은 다른 무엇보다 현세에서의 見佛이다. 이 견불에 대해서는 《대지도론》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죄의 허물에 의해 결박되었더라도 일심으로 염불하는데 신심이 깨끗하고 의심이 없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므로 마침내 헛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라.<sup>82)</sup>

더욱이 隨喜功德을 찬탄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염념하며 隨喜하기 때문에 속히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sup>83)</sup>

다시 보살은 항상 염불삼매를 잘 닦은 인연으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난다. 《반주삼매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보살은 이 삼매에 들어가 아미타불을 친견한다.<sup>84)</sup>

위 문장에서는 염불로 이루어진 삼매는 반주삼매로서 견불이다. 이러한 견불의 得益을 《십주비바사론》에서

친견할 때 반드시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阿惟越致 지위에 머무른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 몸을 친견하면 마음이 큰 환희심으로 넘치고 청정한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이와 같으면 보살삼매를 얻으며, 이 삼매력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통달하며 능히 바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삼매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 모든 중생은 오랜 동안 深心으로 부처님을 친견하여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선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85)</sup>

고 논하고 있다. 여기서 見佛할 때 必定에 들어간다고 하는 필정, 즉 삼매는 阿惟越致 지위를 밝힌 것으로 용수시대에 널리 알려진 定說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는 阿惟越致 사상을 이행도에서도 취급한 것이다. 용수가 부처님을 친견함에 의해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상은 반주삼매에 의한 것이다. 이 삼매는 인도의 종교에서 전통적인

82) 大正藏 25, p. 127上.

83) 大正藏 25, p. 610下.

84) 大正藏 25, p. 276上.

85) 大正藏 26, p. 32下.

실천방법일 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의 실천에서도 삼매를 기초로 하였다. 특히 반주삼매는 단지 見佛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般若空觀을 기초로 해서 모든 법의 實相에 바로 들어가는 데까지 발달한 삼매로서 용수가 수용하여<sup>86)</sup> 見佛에 의해 阿惟越致에 머문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용수의 염불은 《반주삼매경》에 근거를 두고 見佛에 의하여 삼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염불의 得益은 현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三昧現前·入必定·得身光明·除病·除苦痛이며 見佛로서 무량수경류의 염불왕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IV. 結 論

이상으로 보면 용수의 문명과 염불사상의 특색은 新方便의 易行道로서 속히 阿惟越致에 이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이다. 또 아미타불 한 부처님에 대한 稱念이 아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 대한 것이다. 즉 十方諸佛에 관해서는 ‘若人聞名者’·‘聞是十佛名號執持在心’·‘聞是佛名能信受者’ 등의 문명이며, ‘應以恭敬心執持稱名號’·‘應當念是十方諸佛稱其名號’·‘一心稱其名號’·‘其有稱名者’ 등의 念稱佛이고 아미타불 등 백칠불에 대해서 ‘稱名一心念’·‘稱名憶念’·‘念我稱名自歸’의 염불로서 시방 모든 부처님, 백칠불에 대한 聞名과 念佛이다. 이러한 聞名과 念佛은 모든 수행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실천행도다. 다시 말하면 용수의 본의는 信受·예배·칭찬·참회·서사·독송·다라니 등<sup>87)</sup>과 같은 많은 수행방법 가운데 문명과 염불이 제일이라는 견해, 즉 염불중심의 실천 수행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또 용수는 《반야경》과 《반주삼매경》에 근거하여 문명과 염불을 논하여 作佛·得不退轉·반주삼매에 목적을 둔 것이 독특한 면이다. 염불에 대해서는 色身→法身→實相의 절차를 설하여 初發意菩薩로 하여금 수행케 한 것은 정토경전에서 볼 수 없는 용수만의卓見이라고 본다. 게다가 용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十號念佛을 숭하였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十號念佛을 하면 삼매력을 얻어 見佛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용수의 본의다. 이 十號念佛은 색신염불→법신염불→실상염불의 행도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삼매를

86) 시카이 슈조, 앞의 책, p. 444

87) 《십주비바사론》(大正藏 26, p. 45上)에서는 ‘求阿惟越致地者 非但憶念稱名禮敬而已 復應於諸佛所懺悔 勸請隨喜迴向’라 하였고, 또 《대지도론》(大正藏 25, p. 59中)에서는 ‘是中多有信法善男子善女人 種種華香瓔珞幢幡伎樂燈明珍寶以財物供養 若自書若教人書 若讀誦聽說 正憶念修行 以法供養是人以是因緣故 受種種世間樂 末後得三乘入無餘涅槃’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말하고 있다.

얻을 수 있는 初發意菩薩의 新方便인 易行道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용수가 말한 다른 念佛사상은 十號念佛을 주장하기 위한 서술형일지 모른다.

다음 용수의 念佛사상은 모든 무량수경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토왕생의 목적보다 현생에서의 得益이 중심이다. 즉 현세에서 반주삼매·염불삼매·入必定이며, 除病·소멸 무량죄의 현실적 得益이다. 이것은 용수가 정토경전 외의 다른 경전에 실해져 있는 得益에 근거를 둔 것으로 현실을 중시했다고 생각된다.